

‘최순실 게이트’ 체육계 강타...야구·축구 승부조작 몸살

2016년 스포츠 10대 뉴스

2016년 스포츠 10대 뉴스



1
(513점)
체육계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와
김종 차관의 몰락



2
(325점)
이세돌-알파고
‘세기의 대결’



3
(311점)
박인비, 116년 만의 올림픽 종목
골프 금메달



4
(215점)
한국야구, 올림픽 최초 전 종목 석권



5
(209점)
리우올림픽서 4회 연속 톱10
‘10-10’달성은 실패



6
(188점)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심판매수 등 비리로 몸살



7
(172점)
체육단체 통합과 이기흥
체육회장 체제 출범



8
(164점)
박태환, 체육회와 갈등 끝에
올림픽 출전...부진 이후 재기



9
(119점)
전북, 10년 만에 아시아축구
정상 탈환...최강희 올해의 감동



10
(111점)
프로야구 두산, 21년 만에
통합우승 및 KS 2연패...
시즌 최다승

대통령 탄핵 정국을 불러온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한국 체육계에서도 가장 큰 뉴스로 뿔뿔히 났다. 연합뉴스가 신문·방송 등 57개 전국 주요 언론사의 스포츠 담당 부서를 대상으로 ‘2016년 스포츠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설문조사를 한 결과 ‘체육계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몰락이 1위를 차지했다. 이 항목은 1위 표만 39표를 얻는 등 총 513점을 받아 10대 뉴스 후보 30개 문항 가운데 압도적으로 첫 손가락에 꼽혔다. 총점은 1위 표 10점, 2위 표 9점, 3위 표 8점 순으로 10위 표까지 순위별 차등 점수를 매겨 이를 더했다.

1 체육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와 김종 전 차관의 몰락

2016 한국 스포츠계는 ‘최순실 게이트’의 직격탄에 맞았다. ‘스포츠계 최고 실세’로 불렸던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최순실의 사적 이익을 위한 ‘심복 역할’을 해온 것으로 드러나 체육인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남겼다. 평창올림픽 개·폐회식장과 1500억원대 임시 시설물 사업 수주에 뛰어든 최씨가 자신의 이권 사업에 비협조적이었던 조양호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자리에서 찍어냈다는 정황까지 밝혀졌다. ‘최순실 게이트’의 진앙은 승마였다. 최순실은 승마 선수인 자신의 딸 정유라를 위해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판정상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하는 등 ‘특혜 지원’ 의혹이 쏟아졌다.

2 인간 최고수 이세돌 vs 인공지능 알파고 ‘세기의 바둑대국’

인간의 직관까지 따라 하는 인공지능(AI)이 인간 최고수를 넘어선 일이 벌어졌다. 구글 자회사 딥마인드가 만든 ‘알파고’(AlphaGo)라는 바둑 인공지능이 세계 최정상 기사 이세돌 9단에게 도전장을 내밀면서 지난 3월 인간 최고수와 최신키의 ‘세기의 대국’ 열렸다. 대국 전에는 이세돌 9단의 완승 전망이 우세했지만 알파고는 1~3국에서 내리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세돌 9단은 제4국에서 복잡한 판을 만들어나간 뒤 중량의 허점을 노린 ‘신의 한 수’(백78수)로 알파고의 버그를 끌어냈다. 대국 자체는 4승 1패로 알파고의 승리로 끝났지만 사람들은 이세돌 9단의 1승에서 ‘인간이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읽고 자부심을 느꼈다.

3 박인비, 116년 만의 올림픽 골프 금메달

21세기 들어 처음 열린 올림픽 여자골프의 금메달 주인공은 박인비(28·KB금융그룹)였다. 지난 8월 1900년 파리 대회 이후 116년 만에 진행된 리우 올림픽 여자 골프에서 박인비는 최종합계 16안타와 268타를 기록,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메달을 따낸 리디아 고(뉴질랜드)보다 무려 5타가 앞섰다. 경기 중 표정 변화가 없는 박인비도 마지막 퍼트를 넣은 후 두 팔을 치켜들며 기쁨을 만끽했다. 7월 초까지만 해도 박인비는 왼손 엄지 부상으로 올림픽 출전이 불투명했다. 그러나 박인비는 보란 듯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4개 메이저 골프 대회 우승(커리어 그랜드 슬램)과 명예의 전당 입회에 이어 최초로 ‘골든 그랜드 슬램’이라는 새로운 골프사까지 썼다.

4 한국 야구, 올림픽 최초 전 종목 석권

한국 야구 대표팀이 리우 올림픽에서 사상 최초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에 걸려있는 금메달 4개를 싹쓸이했다. 한국 야구는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목에 건 것을 비롯해 2000년 시드니 올림픽, 2004년 아테네 올림픽, 2012년 런던 올림픽 등에서 금메달 3개씩을 따냈지만 전 종목 석권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대생 김우진-구본찬(현대제철)-이승윤(코오롱엑스텐보이즈)은 남자 단체전 결승에서 8년 만에 금메달을 되찾아왔다. 기보배(광주시청)-최미선(광주여대)-장혜진(LH)은 여자 단체전 8연패의 위업을 이뤘다. 여자 개인전에서는 ‘대기만성’ 장혜진이 새로운 스타 탄생을 알렸다. 구본찬은 남자 개인전 우승으로 전 종목 석권에 마침표를 찍었다.

5 리우올림픽 4회 연속 톱10...‘10-10’은 실패

한국은 올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2016 리우 올림픽을 8위로 마무리했다. 한국은 지난 8월 22일 폐막한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9개, 은메달 3개, 동메달 9개를 따내 2008 베이징 올림픽(남민턴 제외) 중 8위를 차지했다. 남녀 야구에 걸린 금메달 4개를 휩쓸은 것을 필두로 사격, 펜싱, 태권도(2개), 여자골프를 합쳐 총 9개의 금메달을 수확했다. 한국은 2004년 아테네 올림픽부터 4개 대회 연속 톱 10에 올랐으나 애초 목표로 한 10개 이상의 금메달로 종합 순위 10에 안착하는 ‘10-10’은 실패했다. 한국이 올림픽에서 두 자릿수 금 사냥에 실패한 것은 2004년 아테네 대회(금 9, 은 12, 동 9) 이후 12년 만이다.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 귀국

지난 4월 캐나다 휘슬러에서 열린 2016~2017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에 출전했던 한국 봅슬레이·스켈레톤 대표팀이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봅슬레이 2인승 원윤종(왼쪽부터)과 서영우, 스켈레톤 윤성빈, 봅슬레이 2인승 전정린, 김동현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6 프로스포츠 승부조작·심판매수...비리 몸살

2016년 한국 프로스포츠는 치부를 드러냈다. KBO리그는 사상 최초로 800만 관중 시대를 열었지만 ‘승부조작’의 짙은 그림자가 리그를 삼켰다. 이태양(전 NC)과 유창식(KIA)이 승부조작 가담 혐의를 인정했고, 두산 진아곱과 이재학(NC)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베팅한 사실도 알려졌다. 해외원정도 박 의혹을 받아온 안지만은 불법도박 사이트 개설에 투자한 혐의로 유니폼을 벗었다. 음주운전 사건도 이어졌다. K리그는 심판매수 사건으로 흥역을 앓았다. 전북의 스카우트가 2013년 2명의 심판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500만원을 준 사실이 적발됐다. 프로축구연맹은 ‘승점 9 삭감’을 명령하고 벌금 1억원을 부과했다. 결국, 전북은 K리그 우승을 놓쳤다.

7 체육단체 통합과 이기흥 체육회장 체제 출범

2016년은 한국 스포츠에 커다란 변화가 생긴 한 해였다. 엘리트 스포츠를 담당하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을 다루는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가 통합한 것은 1991년 국민생활체육회 창립 이후 25년 만에 일어났다. 지난해 3월 양대 체육 단체를 통합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1년만인 올해 3월 통합체육회 법인 등기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통합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대한체육회’로 명칭을 정한 통합체육회는 4월 초에 출범식을 열고 한국 스포츠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통합 이전에는 한 종목에 엘리트와 생활체육 단체가 별도로 존재했으나 이제 한 단체에서 총괄적으로 생활 및 학교 체육과 엘리트 스포츠를 관리한다.

8 박태환, 체육회와 갈등 끝 올림픽 출전...부진 이후 재기

금지약물 복용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박태환(27)은 지난 3월 국제수영연맹의 징계가 해제됐다. 그는 국가대표 선발을 겸한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출전한 4종목 모두 A기준기록을 통과했지만 리우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 대한체육회는 ‘이중저벌’ 논란에도 박태환의 대표 발탁을 거부했다. 박태환은 법원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판단으로 간신히 태극마크를 달았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뒤늦게 알려진 사실이지만, 박태환은 김종 전 차관으로부터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는 협박과 회유까지 받았다. 좌절하지 않은 박태환은 10월 전국체전에서 자유형 200·400m 모두 대회 신기록으로 우승했고, 11월 아시안수권대회에서는 4개의 금메달을 휩쓸었다. 12월에는 9년여 만에 출전한 쇼트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9 전북, 10년 만에 야구 정상 탈환...최강희 올해의 감동

전북 현대가 10년 만에 2016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차지했다. 전북은 11월 19일 전주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 알 아인과의 결승 1차전에서 두 골을 몰아넣은 레오나르도의 활약에 힘입어 2-1로 승리했다. 26일 결승원정 2차전에서 1-1 무승부를 기록해 1, 2차전 합계 1승1무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이 대회 정상에 섰다. K리그 클래식에서 역대 최다인 33연속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한 전북은 AFC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막강한 전력을 과시했다. 최강희 감독은 2006년에 이어 전북에서 2번 우승의 기쁨을 맛봤다. 2003년 시작된 이 대회에서 처음 두 번 우승을 차지한 최 감독은 2016 AFC 어워드 ‘올해의 감독상’을 받았다.

10 프로야구 두산, 21년 만에 통합우승 및 KS 2연패

김태형 감독이 이끈 두산 베어스가 한국시리즈 2연패 및 1995년 이후 21년 만의 정규 시즌 포스트시즌 통합우승을 달성했다. ‘판타스틱 4’로 불린 더스틴 니퍼트(22승)-마이클 보우덴(18승)-장원준(15승)-유희관(15승)이 정규시즌에 무려 70승을 합작했다. 두산은 KBO리그 최초로 한 시즌 15승 이상 투수 4명을 배출했다. 야수 쪽에서는 ‘화수분 야구’가 꽃피면서 김현수의 공백은 찾기 힘들었다. 김재환과 오재일이 만난 유망주 꼬리표를 땀과 박건우도 가파르게 성장했다. 두산은 정규시즌을 93승 1무 50패(승률 0.650)로 마쳤다. KBO리그 역대 한 시즌 최다 승이다. 한국시리즈에 직행한 두산은 NC 다이노스를 맞아 7전 4승제의 한국시리즈를 4경기 만에 끝냈다.

